

국어 영역(1회차)

<기출 접근법>

1. 문제를 푼다.(시간 7분~8분)
 2. 1차 채점을 한다.(답은 쓰지 말자.)
 3. 다시 푼다.(시간 제한 없음, 유대중 강사에게 배운 독해법을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푼다.)
 4. 2차 채점을 한다.(이 때 답을 확인)
 5. 1차, 2차 채점에서 모두 x,x라면 일기를 쓴다.
- * 일기 형식 : (1) 내가 왜 이 오답을 답이라고 생각했었는가, (2) 그런데 지금보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답이 아니었고, (3) 사실 이것이 정답인데, 정답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4) 그렇다면 왜 난 정답을 찾지 못하였나?

2015학년도 수능A+B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과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이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 거미 독해법 구문표 -

<항상, 논제(네모), 핵심(접속사), 지시어(v)를 표시하며 따라가자.>

1문단 : looks like but, also, 필요조건, 표지 역할을 하는 논제가 서론에 기술되어 있다.

2문단 : 수식+피수식(상대성), 목적 > 수단, 사칙(더하기), 수식+피수식(항성, 변성), 필요조건(~를 통해)

3문단 : 구분전(공통점), 대비(속성까지 대비하라), 필요조건(~를 통해), 대우

4문단 :

5문단 : 수식+피수식, 5형식(조선 민중 = 주체)

1.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 각 문단별 핵심을 찾아야 하는 문제! -

2. 밑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2)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특정 부분에 대한 개념(한 두 문단에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 -

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1문단을 똑바로 읽어야 해결되는 문제! -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

- ① ㉠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어휘 풀이법 중, 범주 판단에 대한 문제 -

<2015 수능 해설>

인문, '신채호의 역사관'

1) (15-B) ④ 정보 찾기 추론

정답해설 : 신채호가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면서 대아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대아의 개념이 생겨난 역사적인 기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요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자성'이 '나의 나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서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조선 민중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함께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중 연대의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15-B) ④ 세부 정보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는 적응력이 약화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자성을 갖춘 모든 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대아로서의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다는 것은, 대아의 고유성이 약하고 적응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유성을 상속성과 적응성을 보편성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⑤ 소아는 대아와 달리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상속성과 보편성의 실현 여부를 소아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3) (15-B) ③ 정보 찾기 추론

정답해설 : 4,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조선 민중을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연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신채호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술했다고 언급한 점에서 『조선상고사』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아로서의 조선민족의 자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아의 항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신국민을 강조한 것에서 신채호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비아 속의 아)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4) (15-B) ③ 어휘

정답해설 :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다.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은 '선정'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③

2014학년도 수능b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 거미 독해법 구문표 -

<항상, 논제(네모), 핵심(접속사), 지시어(v)를 표시하며 따라가자.>

1문단 : 주지 > 예시, 문제 < 해결, 수식+피수식 (심신이원론), 지시어에 유념하자, 표지 역할을 하는 논제가 서론에 기술되어 있다.

2문단 : 그러나 (→)

3문단 : looks like, 지시어에 유념하자, ST < IT

4문단 : 그러나(→), ST<IT

5문단 : (이처럼 생략), 그래서(→), 수식+피수식 (심신일원론), 오로지-만(보조사나 부사어에 집중하자.)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3.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 | |
|-----------|-----------|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
| ① a | b |
| ② a | c |
| ③ b | a |
| ④ c | a |
| ⑤ c | b |

<2014 수능 해설>

1. 정보 찾기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언급된 두 가지 상식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 된다는 생각'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동일론(심신 일원론)'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육체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론'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 이원론'에서는 두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평행론'은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이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평행론'에서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4문단에서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 세부 정보 추론

정답해설 : '평행론'은 모든 물질적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물질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론'과 '동일론'은 모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③

3. 보기 사례

정답해설 : '부수 현상론'에 따르면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 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만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는 조수 간만과 달의 모양 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육체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수 간만)는 ㉠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면서 개펄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육체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달의 모양)는 ㉠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지만 ㉢에 의해 ㉡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인과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즉 ㉠이 ㉢의 원인이 되지만, 역으로 ㉢이 ㉠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